

복잡한 '북한 선택'... 치열해진 동북아 외교전

日, 납치문제 해결... 꺾막힌 北·日관계 돌파구 韓·美, 대북 군사압박 치중 주도권 상실 우려

북한을 둘러싼 동북아시아 각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일본이 북한과 납치문제 해결 원칙에 합의한 데 이어 러시아도 북한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 와중에 한국과 미국은 '전략적 인내'라는 구호 속에 군사적 대북압박에만 주력하고 있어 동북아 외교환경 변화에서 주도권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납치문제-독자제재 해제 맞바꾼 日 = 일본 아베 정부는 북·일 국장급 회담을 통해 북한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은 북한 선박의 입항금지 등의 독자제재 조치를 일부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로 꺾 막혔던 북·일관계에 돌파구를 열었다. 앞으로 합의 이행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비해 납치의 책임이 덜한 김정은 정권의 입장에서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북일합의'를 이행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아베 총리는 취임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재일 중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의지를 표명한 만큼 "약속을 이행하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국민적 지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은 해방 전후 북한 지역에 있던 일본인 유골 반환과정에서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일본의 독자제재 해제로 경제적 실익도 챙길 수 있다. 더군다나 북·일 간의 협력이 국교 정상화되어 어진다면 과거 일제 통치에 대한 배상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

◇크림 사태로 '사면초가' 러시아, 北에 눈길 = 러시아는 최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북한과 '정부간 통상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 회의에서 대대적인 양국 경제협력에 합의했다. 우선 북한이 무역대금을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결제하고 러시아가 북한 내 지하자원 개발사업에 참여키로 했다. 또 러시아의 석유화학기업 '타이프'는 북한에 주요소장을 구축하는 사업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일부 러시아 기업들은 금광 등 북한 지하자원 개발사업에 눈독을 들였다.

러시아의 이러한 행보는 크림 사태에 따른 서방의 경제제재로 유럽으로의 서진(西進)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동북아를 통한 동진정책으로 출로를 모색하면서 북한을 교두보로 삼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中, 북핵대화 모색 역내 '외교맹주' 노려 러시아, 북한과 대대적 경제협력 쟁점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상하이로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과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지사가 10년간 끌어오던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한 것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북한은 중국과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를 통해 경제·외교적 승통을 띄우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국제적 제재에 놓인 북한과 크림반도 사태로 유럽의 제재에 놓인 러시아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셈"이라며 "러시아는 북한을 통해 남쪽으로 내려오는 가스관 사업에도 속도를 내려고 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북아시아 외교 주도권 노리는 中 = 중국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과 직접 교류보다는 북핵 대화를 모색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법에 관심을 두는 모양새다.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북한과 미국을 오가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조율하고 있고,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방한 후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발표문에서 "6자회담을 회색시키는 것은 각 당사국의 공통된 이익에 부합하므로 각 당사국은 모두 이를 위해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관련국과

접촉을 이어가면서도 최근 동북아시아에서 '외교 맹주'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기울이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날 21일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를 아시아 지역의 안보협력기구로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아시아의 일과 문제는 아시아인들이 직접 처리해야 하며 아시아의 안보 역시 아시아인들이 수호해야 한다"며 아시아 국가들의 대미 안보의존을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대북외교 무대서 존재감 없는 韓·美 = 반면 박근혜 정부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화나 협상보다는 군사적 압박에 치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미연합상륙훈련인 쌍용훈련과 한반도 영공에서 실시된 한미공군훈련인 맥스인터 훈련 등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로 열렸다.

미군이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문제를 검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대북압박 공조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북한과 대화와 교류는 사실상 실종된 상황이다.

홍현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동북아 주변국들이 국외 대외화를 위해 북한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수수방관은 외교적 궁지에 몰릴 수 있다"며 "적어도 북한과 대화는 계속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라크 차량폭탄테러 92명 사망 이라크 뉴바그다드 동남부 지역에서 8일(현지시간) 처참하게 부서진 차량폭탄 폭발 현장 한 주민이 살펴보고 있다. 전날과 이날 이틀동안 연이은 주말 폭탄테러 발생으로 이라크에서는 최소 9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왜 그걸 선택했을까" 쥐도 사람처럼 후회한다

美 미네소타대 연구팀

충지않은 선택엔 동작 망설여

쥐도 사람처럼 잘못된 선택을 한대 후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미네소타대학 신경과학자들은 쥐를 대상으로 일정한 시간을 기다린 후 먹잇감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먹잇감이 있는 곳으로 옮길 것인가 선택하도록 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기다리는 것이 싫어 좋은 먹잇감을 포기하고 다른 먹잇감으로 찾아간 결과, 더 오래 기다리지 않음으로써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된 쥐는 자주 동작을 멈춘채 포기한 먹잇감이 있는 쪽을 되돌아 왔다.

동시에 나쁜 선택을 한 쥐는 인간이 후회를 느낄때 활성화되는 뇌속의 '안외전두 피질'(orbitofrontal cortex)의 전기 화학 작용이 활발해졌다. 연구팀의 데이비드 레디쉬 교수는 "흥미로운 점은 쥐의 안외전두 피질이 반응을 보이도록 한 요인은 잃어버린 먹잇감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한 것 때문이었다"면서 "인간 역시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그는 후회에 관한 쥐 실험은 인간이 결정을 내릴때 후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 윌턴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연구 결과는 쥐가 높은 인지 능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후회의 감정이 인간 이외에 포유류 동물에게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 논문은 8일 과학저널 '네이처 신경과학'에 실렸다. /연합뉴스

스페인 국왕 "내 아들, 찰스 처럼 늙히긴 싫었다"

양위 이유 밝혀

최근 퇴위를 발표한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스(76) 국왕이 자신의 아들은 영국의 찰스 왕세자(65)처럼 왕위 계승을 기다리며 늙어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양위를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카를로스 국왕은 측근인 왕실 총책임자 라파엘 스포르토노와 대화하며 왕위 계승

자가 젊을 때 왕위를 넘겨주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8일(현지시간) 스페인 일간지 엘문도를 인용해 전했다. 그는 영국의 찰스 왕세자를 거론하며 "내 아들이 찰스 왕세자처럼 왕위 계승을 기다리다가 시들어가길 바라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엘문도는 카를로스 국왕 75세가 생일을

맞은 지난해 1월부터 아들인 펠리페 왕세자(46)에게 왕위를 이양하는 문제를 고민해왔다고 보도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펠리페 왕세자가 한창 나이이며 오는 11월에 66세가 되는 찰스 왕세자처럼 되는 것은 바라지 않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영국의 찰스 왕세자는 세자가 된 지 62년째를 맞아 빅토리아 여왕의 아들 에드워드 7세의 최장 기록인 59년을 넘겼으며, 영국 역사상 300년래 가장 나이가 많은 왕위 계승자로 꼽힌다. /연합뉴스

변화와 혁신으로 영암의 밝은 미래!!

6.4 지방선거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영암군수



전동평(田東平) · 새정치민주연합

군의원(가선거구)



박찬중(朴燦鍾) · 새정치민주연합

이하남(李夏男) · 새정치민주연합

박영배(朴泳培) · 무소속

군의원(나선거구)



김철호(金澈鎬) · 새정치민주연합

강찬원(姜贊元) · 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



우승희(禹承熙) · 새정치민주연합

김연일(金然日) · 새정치민주연합

군의원(다선거구)



조정기(曹正基) ·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수(朴永守) · 새정치민주연합

군의원(비례대표)



고화지(高花子) · 새정치민주연합



영암 F1 경기장

월출산

영암군청, 영암군의회 직원 일동 · 영암군 사회단체 협의회원 일동 · 영암군 여성단체 협의회원 일동 · 영암군 농업인단체 연합회원 일동